

고품격! 정통 시사 주간신문

일요주간

398호

2013년 5월 7일 www.ilyoweekly.co.kr

인터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 '한평 극장' 배우 심철중

한평 남짓한 공간서 펼쳐지는 연극 이야기

한평극장 연출가 겸 배우 심철중 "무대 위에서 죽는 게 꿈"
한평 남짓한 무역이라는 공간을 연극 무대로 탄생시켰다



심층진단

대통령 기록물 보관 허와실

사라진 MB 비밀기록물

이제 기록하라

정보공개센터 "MB 기록물 1088만건?...실제는 48만건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 중 비밀기록 한 건도 없다



오남인사 없는 김한길씨의 선택은

포커스 | 남양유업 직원 폭언 파문 일파만파

막말 이어 비윤리 경영 도마에 홍원식 회장 최대위기

누리꾼, 남양유업 제품 불매 서명운동 벌여, 檢 제품 '밀어내기' 원고 관련 본사 입수수색



당권 장악 김한길,
유흥 대선주자 부상?

최고위원 당 역세지역 출신 역진,
비주류 장난적 선전
대표 오남출신 최고위원 지명일
수도...최종 구성 주목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노조 '긴급구제' 호소

죽음의 직장 "도와 달라"

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절박한 심경, '죽음의 직장' 도와 달라"

법원행정처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연도	사망자 수	사망률
2001	1	0.0001%
2002	1	0.0001%
2003	1	0.0001%
2004	1	0.0001%
2005	1	0.0001%
2006	1	0.0001%
2007	1	0.0001%
2008	1	0.0001%
2009	1	0.0001%
2010	1	0.0001%
2011	1	0.0001%
2012	1	0.0001%
2013	1	0.0001%
2014	1	0.0001%
2015	1	0.0001%
2016	1	0.0001%
2017	1	0.0001%
2018	1	0.0001%
2019	1	0.0001%
2020	1	0.0001%
2021	1	0.0001%
2022	1	0.0001%
2023	1	0.0001%
2024	1	0.0001%
2025	1	0.0001%
2026	1	0.0001%
2027	1	0.0001%
2028	1	0.0001%
2029	1	0.0001%
2030	1	0.0001%
2031	1	0.0001%
2032	1	0.0001%
2033	1	0.0001%
2034	1	0.0001%
2035	1	0.0001%
2036	1	0.0001%
2037	1	0.0001%
2038	1	0.0001%
2039	1	0.0001%
2040	1	0.0001%
2041	1	0.0001%
2042	1	0.0001%
2043	1	0.0001%
2044	1	0.0001%
2045	1	0.0001%
2046	1	0.0001%
2047	1	0.0001%
2048	1	0.0001%
2049	1	0.0001%
2050	1	0.0001%
2051	1	0.0001%
2052	1	0.0001%
2053	1	0.0001%
2054	1	0.0001%
2055	1	0.0001%
2056	1	0.0001%
2057	1	0.0001%
2058	1	0.0001%
2059	1	0.0001%
2060	1	0.0001%
2061	1	0.0001%
2062	1	0.0001%
2063	1	0.0001%
2064	1	0.0001%
2065	1	0.0001%
2066	1	0.0001%
2067	1	0.0001%
2068	1	0.0001%
2069	1	0.0001%
2070	1	0.0001%
2071	1	0.0001%
2072	1	0.0001%
2073	1	0.0001%
2074	1	0.0001%
2075	1	0.0001%
2076	1	0.0001%
2077	1	0.0001%
2078	1	0.0001%
2079	1	0.0001%
2080	1	0.0001%
2081	1	0.0001%
2082	1	0.0001%
2083	1	0.0001%
2084	1	0.0001%
2085	1	0.0001%
2086	1	0.0001%
2087	1	0.0001%
2088	1	0.0001%
2089	1	0.0001%
2090	1	0.0001%
2091	1	0.0001%
2092	1	0.0001%
2093	1	0.0001%
2094	1	0.0001%
2095	1	0.0001%
2096	1	0.0001%
2097	1	0.0001%
2098	1	0.0001%
2099	1	0.0001%
2100	1	0.0001%

재벌가 담벼락 전쟁 막으

신세계 구학서 잇단 분쟁 구설수

서초구 우면동 영춘마을 재벌가들 땅 소유권 다툼 격화
구 회장 "담당 설계야라"...형창구 전 삼성전자 사장 반발

[연장취재] 통신패밀리오법과 언론의 자유

'통비법' 죄사슬에 묶인 언론자유

"정수정역의 매각 대와 보도가 죄가 될 수 있다"

